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Adolescent Experience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Area

권해수**

Hae Soo Kweon

Abstract

Study o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so far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school-aged children, and it uniformly presents those children as a mere being with problem, overlooking regional variables of rural area. Hence, this study aims to seek various means of adaptation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by considering both variables rural area and adolescence. For this study, six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living in the rural area of H county in Jeonlanamdo were chosen, in-dept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Giorgi(1985) was use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The results shows that these adolescences appear to have extensive experiences in the areas of learning, personal relationship, home and identity.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was influenced by what school they attend to, and personal relationship aspect was affected by prejudice and discriminative perception from people around them. In addition, in home environment, hatred toward father, sympathy for mother, comparison with mothers who have great cultural adaptation skills, and pressure as the firstborn appear to be on the increase. Adolescent children tend to be addicted to internet games in order to escape from anxiety, experiencing identity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조선대학교 인문학분야 학제간 공동연구 학술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 e-mail: hskwon@chosun.ac.kr

crisis. They tend to be negative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their parents, and exhibit behaviors refusing values and religious view of their parents. At the conclusion,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 for further study are presented.

주요어(key words):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청소년(Adolescence), 농촌(Rural Area),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결혼가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여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되었다. 여기에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자녀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학교를 비롯한 공식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을 한국 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 당연시해왔던 기존 패러다임에 질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김이선, 2009).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논의의 축은 영·유아,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 수행 및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에 집중되었다(박윤경 & 이소연, 2009; 서현 & 이승은, 2007; 오성배, 2007; 이소희 & 최운선, 2008; 장덕희 & 신호선 2010; 조혜영, 서덕희, & 권순희, 2008). 관련 연구들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을 위한 교육적, 복지적 지원이 무엇인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언어발달, 역사 그리고 문화적 지식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과목에 있어서 학습부진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체성 혼란과 자신감 결여, 소극적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또래집단과의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학업수행, 학교적응 및 생애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어머니가 한국 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녀들이 학업 수행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 김성운, 2008; 설동훈 등, 2005; 설동훈, 이혜경, & 조성남, 2006; 이영주, 2007; 이재분, 강순원, & 김혜원, 2008; 장덕희 & 신효선, 2010). 특히 피부색이나 말투, 어머니 출신국 등의 이유로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학업과 대인관계 영역의 부적응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설동훈 등, 2005; 이영주,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영·유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로서 아동기 적응 형태가 청소년기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실제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의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경험적인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과반수인 60%는 취학 전 아동이며, 7~12세가 32.5%, 그리고 그 이상은 7.7%에 불과하다(통계청, 2009). 본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국제결혼 자녀의 숫자인 약 4만 5천 명 중 32.5%인 약 15,000여 명은 5년 이내로 청소년기에 접어든다는 의미이

며, 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므로 청소년기 적응 양상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맥락을 간과함으로써 농촌 국제결혼가정과 도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국제결혼하면 농촌의 국제결혼을 떠올리면서도 농촌이라는 지역적 변수가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제까지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이해하는 작업은 주로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서덕희, 2009). 2008년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남성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이 41.1%를 넘는다(통계청, 2009)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이미 농촌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소위 ‘국제결혼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농촌이라는 지역적 변수는 한국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변인을 간과한 채 학업,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에서 ‘문제’를 지닌 존재로 획일적으로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청소년기라는 생애발달단계의 맥락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Nieto(2004)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적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농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적응 경험을 바라보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 1)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 2) 청소년기라는 생애발달적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의 특징

청소년기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사회적 환경의 피드백에 민감해 지면서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Harter, 2003).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적합한가?’와 같은 정체성 고민은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수용에 대한 불안과 또래관계로부터 거부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대인관계 불안은 자녀들의 정체성 위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질적인 외모를 가졌거나 양쪽 부모의 양육 기준과 가치관이 대립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들은 학교 장면에서 정체성 갈등, 학업과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rod et al., 1999; William et al., 1996).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학교 영역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에는 옷차림, 인터넷 게임 시간, 이성친구와의 교제, 귀가 시간 등 일상적인 일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잦은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Adams & Lauren, 2001). 특히 양쪽 부모가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경우 부모-청소년 자녀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Herman, 2004). 국내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자녀 갈등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으로(예, 김진희 & 박옥임, 2008; 모선희 등, 2008; 서덕희, 2009),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자녀간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가진 본질적인 특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부와 모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와 갈등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며 자녀의 성장과 성취를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당해내고 있다. 부모의 희생은 자녀에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심한 불안감을 겪는다(Keats, 1997). 청소년기 불안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력이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Gibson et al., 1991). 우수한 학업 성적만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자녀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은 자녀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자녀를 자신과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김이선 & 김민정, 2006; 김진희 & 박옥임, 2008; 송미경, 지승희, 이은경 & 임영선, 2008) 이러한 이주 여성의 기대와 관심과 희생은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줄 것이며, 부모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서 자녀

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핵심 정서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농촌 국제결혼가정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문화 시설, 교육 여건의 부족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많다(김진희 & 박옥임, 2008). 특히 농촌 국제결혼가정은 빈곤 문제가 심각하며(김오남, 2006; 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부부간 학력 격차도 심하다(양순미, 2007). 이러한 농촌 국제결혼가정의 본질적 특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은 이러한 가정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적응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나 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연구들이 있다(서덕희, 2009; 서현, & 이승은, 2007; 안효자, 2008; 양순미, 2007; 한건수, 2006). 관련 연구들에서는 농촌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교육 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학업 성취 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이주 여성이거나 혹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들로 농촌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청소년기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농촌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를 연구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본 점은 농촌 학교의 특이성이다. 대부분 농촌의 읍단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반하여 면단위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단위에 있는 초·중학교는 과대과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들은 초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이다. 도시에서는 한 학급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아야 한 명 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촌 학교의 경우 이미 한 학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인구학적 변동의 추세로 보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역동은 분명 도시의 대규모 과밀학급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위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학교의 경우 1면 1개교라는 원칙이 초등학교에는 적용되지만 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좀 더 큰 규모의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혹은 고등학교의 경우 아예 읍지역의 대규모 학교로 옮겨야 한다. 이처럼 농촌 지역의 자녀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 규모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적 변인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적·사회적 자아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전라남도 H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전라남도는 2005년 이후 3년간 국제결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히 그 중에서도 H군은 전라남도 시·군 중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들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등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 한국인이고 모가 아시아계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H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H교육청 Wee Center, H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굴되었다. 총 14~17세 사이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읍지역은 과대과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학교들로서 학교 규모가 다르며, 무엇보다 H군의 경우 4개 고등학교가 모두 읍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 지역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각 3명씩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5명, 여자 1명이며, 학력은 중학생 4명, 고등학생이 2명이었다. 가족 형태를 보면 모두 모가 아시아계 외국인이고 부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형태에 속하였다. 외국 모의 출신국은 일본 4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이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은 90년대 중후반 통일교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일본 여성이 대부분으로 일본인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가명	연령	성별	학년	지역	아버지	어머니
1	민석	14	남	중1	D면	중졸, 농사	일본, 고졸, 농사
2	민철	17	남	고1	D면	중졸, 농사	일본, 고졸, 농사
3	영숙	14	여	중1	H읍	중졸, 건축	필리핀, 대졸, 식료품 가게
4	현철	15	남	중2	N면	중졸, 운수	태국, 초대졸, 가사
5	철수	17	남	고1	H읍	중졸, 축기사	일본, 대졸, 가사
6	철민	14	남	중1	H읍	중졸, 축기사	일본, 대졸, 가사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4월부터 6월까지 연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라포를 형성하였다. 학습지원 멘토링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는 7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면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최근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의 경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에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질문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질문을 하여 인터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농촌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Giorgi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적 독특성과 시간적 맥락, 개별적 구조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진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절차는 참여자의 기술문을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직관, 분석, 기술을 통하여 각 단계를 거치면서 참여자의 의미를 확인·기술하도록 돕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필사된 내용을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필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내려 가면서 의미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표시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학문적 주제에 합당한 현상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6명의 연구참여자에게서 89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누어진 의미단위를 조합하여 주제화한 후, 주제 안에 담긴 의미단위들을 연구자의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바꾸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경험의 일반적 구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원자료를 읽으면서 이를 점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중심 의미는 23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등의 4가지 평가 기준을 적

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s)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체를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및 관련 전문 인력들과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의 일반성,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의 자취(trail)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할 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다문화 연구 전문가, 교육학 박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를 검토하고, 선행 경험에 대한 철저한 ‘괄호치기’를 시도하면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적응 경험에 대한 단순 일반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적응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경험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경험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농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영역	구성 요소	중심 의미
농촌의 지역적 특성	면단위 학교 경험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함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함
	읍단위 학교 경험	차별과 편견으로 주눅 들어 있음
		스스로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찍음
	면 → 읍단위 진학 이후 학교 경험	학업적 위기를 경험함
		심리적으로 위축됨
면단위 지역의 국제결혼가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는 데 불편함 일에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쓰러움	
읍단위 지역의 국제결혼가정	면지역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주류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음	다문화출신 친구끼리 어울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함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숨김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짐
	부모를 문제해결자로 여기지 않음	무능력한 부모에게 실망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엄마와 갈등을 겪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짐
	부·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	모(母) 출신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짐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짐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불안감이 핵심정서로 등장함	지속적인 학업 부진으로 불안에 시달림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	

4.1. 농촌의 지역적 특성

4.1.1 면단위의 학교 경험

4.1.1.1.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함

면단위에서 소규모학교를 다니는 경우, 급우 간 생활환경, 경제적 수준, 부모 직업 등이 유사하므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별다른 갈등과 좌절 없이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면단위 소학교의 재학생들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가정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주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가 4학년이었을 때 6학년 형 한 명이랑 세 명이서 공부했는데 폐교가 되어 S초등학교로 갔어요. 한 반에 열네 명 정도, 지금 중학교는 열두 명. 초등학교 친구가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집으로 가서 이제 저 혼자예요.” (민석, 중1, 남)

4.1.1.2.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함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자녀들은 방과 후 바쁜 일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예·복습을 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었다. 민석이와 민철이는 소규모 중학교에서 줄곧 2~3등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엄마, 아빠가 공부를 도와주신 적은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알아서 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초등학교와 비교해 수준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만해요. 어려운 과목은 딱히 없어요. … 기회가 있으면 손들고 발표하기도 하고… 준비물도 알아서 잘 챙기고요. 애들보다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빠진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공부 잘해서 N고등학교(H군 소재의 최고 명문고)에 가고 싶어요.”(민석, 중1, 남)

4.1.2. 읍단위의 학교 경험

4.1.2.1. 차별과 편견으로 주눅 들어 있음

읍단위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 학년에 두서너 명에 불과하다. 특히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어눌한 경우, 또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과 거부를 당해 왔기 때문에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일찌감치 형성되었다. 영숙이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끊임없이 놀림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좀 싫어했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계속 물어보고 막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막 놀려대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학교가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한번은 학교 땡땡이 친 적도 있었어요. 학교 안 가고 놀이터에 있었어요. 계속 듣기 싫고 선생님도 싫고… 초등학교 때 부터 스트레스였어요.” (영숙, 중1, 여)

4.1.2.2.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찍음

읍지역은 먼 지역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의 자녀들은 언어가 미숙하고 경제적 형편으로 사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입학하다 보니 학업 성적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 과학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심해졌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아이’로 스스로 낙인찍는 경우가 많았다. 영숙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공부가 싫었으며, 지금도 전 과목에 걸쳐 학습 동기가 크게 떨어진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하고, 짜증나며, 교과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정말 수학은 풀어도 풀어도 이해가 안 가요. 전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아이예요. 저희 동생들은 웬만큼 공부하는데 저만 진짜 못해 가지고 엄마가 맨날 속상하대요. 노력은 하는데요. 하다가 잘 안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네요.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받아쓰기 그것도 맨날 많이 틀리고 선생님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어서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맞나. … 음, 모른 거 생기면요 그냥 넘어가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요. 물어보면 아 이것도 모르냐면서 약간 비웃을 것 같고, 국어나 사회과목 시간만 되면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돼요.”(영숙, 중1, 여)

4.1.3. 면 → 읍단위로 진학 이후 학교 경험

4.1.3.1. 학업적 위기를 경험함

진학을 위하여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서 읍단위의 대규모 학교로 이동한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심각한 학업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주류 집단에 속해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읍단위

의 대규모 학교 진학 이후 학업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교과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학교에서 형성된 학업적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민철이는 읍단위의 학교로 진학한 이후 자신의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준 낮은 문제들을 출제하여 실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던’ 중학교 선생님들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민철이는 ‘아무리 해도 좋은 성적을 회복할 수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등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고등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배치고사를 쳤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이라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요. … 중학교까지만 해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은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놀아요. 근데 생각하면 중학교 때 수학 백점이 5명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너무 수준이 낮게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알았다니 쌤들이 원망스러워요.”(민철, 고1, 남)

4.1.3.2. 심리적으로 위축됨

농촌의 면단위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이지만, 읍단위의 학교는 전교생이 300~500명에 이르는 대규모학교이다.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성장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대규모 학교에 진학하면서 갑자기 확대된 사회적 관계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학업 성적의 하락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저희 학교에서 S고로 간 애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6~7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가 가지고 다 모르는 아이였는데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 속은 되게 불

안하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같은 친구들과 계속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혁 어떻게 지내나 ... 긴장되고..."(민철, 고1, 남)

4.1.4.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4.1.4.1.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는 데 불편함

면단위에서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형편은 극빈층에 해당될 만큼 열악한 수준이며, 가옥조차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비좁고 불편하였다. 민석이네 가옥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할머니를 비롯하여 7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민석이네는 자녀들이 장성하였지만 공간의 분리 없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당 곳곳에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보니 민석이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가 부끄러웠다. 현철이네는 민석이네보다 나은 편이지만,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늘 안고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 놀고 있는 동안 신경이 쓰여요.”(민석, 중1, 남)

“집에 들어오면 짜증나요. 엄마는 맨날 TV 크게 틀어놓고, 동생들은 뛰어다니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현철, 중2, 남)

4.1.4.2. 일에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쓰러움

면단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하거나 혹은 부업(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의 특성상 노동의 강도는 심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이 크지 않고 수입조차 일정하지 않아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쉽지 않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일까지 혼자 도맡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늘 일에 쫓겨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도 많고, 농사일도 많고… 엄마를 보면 안쓰러워요. 엄마가 우리 앞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 우리집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민철, 고1, 남)

4.1.5.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4.1.5.1. 면단위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은 면단위보다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어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느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읍지역은 면단위 지역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결혼가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저하고 동생은 어려서부터 학원 여러 개 다녔어요. 형은 나가는 것 싫어하니까 학원 안 다니고.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자꾸 야단쳐요. 학원 간다고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뭘 모르면서…”(철민, 고1, 남)

4.1.5.2.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움

읍단위 지역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는 편이다. 본 연구참여자의 어머니(이주여성)

들은 관련 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었다. 연구 기간 동안 집을 방문할 때면 이주여성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가끔씩 목격할 수 있었다. 자녀들은 엄마가 외부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혹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였다.

“엄마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Hello’라고 말해요. 필리핀에서 온 아줌마들이 엄마를 찾을 때가 많거든요. 가게에 가보면 필리핀 아줌마들이 많아요.”(영숙, 중1, 여자)

“지난번 군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본어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어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찾기보다 엄마에게 먼저 물어봐요.”(철수, 고1, 남자)

4.2. 청소년기 발달 단계적 특성

4.2.1. 주류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음

4.2.1.1. 다문화출신의 친구끼리 어울림

청소년기에 이르면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특히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어눌하여 또래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본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더욱 민감해졌으며, 그 결과 소수집단으로서 주류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

다. 영숙이는 까만 피부색으로 놀림을 자주 받다 보니 일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친구와 어울리는 편이다. 이들과 어울리는 이유는 엄마끼리도 잘 아는 사이이고 서로 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애 엄마도 일본인인데 개랑만 계속 붙어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요 통일교에서 만나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제 말이 안 들리나 봐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그냥 무시하고 듣는 척만 하고, 꼭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요 꼭 제가 말할 때마다 저한테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진짜예요. 뭔가 내가 재미없게 해서 씹어 대나 싶고...”(영숙, 중1, 여).

4.2.1.2.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함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주류집단에 적응하는 두 번째 방식은 주류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민철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동창생 6명 이외에는 아는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 다행히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한두 명의 친구를 알게 되었지만, 매일 같이 엄습하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민철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 ‘다른 반에 들어가서 개그 흉내를 내고 오기’ 등을 기꺼이 하고 있었다. 민철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습시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 제가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애도 소설을 좋아해 가지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친구들과 친해져야 하니까 야자시간에도 놀고. ...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한번은 친구애들이 다른 반에서 개그에서 나온 행동을 흉내 내어 보라는 거예요. 쪽팔려서 하기 싫었는데... 그냥 했어요. ... 어쩔 수 없죠...”(민철, 고1, 남)

4.2.1.3.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숨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친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외국인 엄마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역사·정치적으로 예민한 나라인 경우,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특정 국가를 폄하한 경우 관련 국가 출신의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였다.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로 분위기가 몰아갈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 사실을 알면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은데?) 친구들이 그냥 평소처럼 해도 좋은 것조차 제 앞에서 좀 눈치를 본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일본을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민철, 고1, 남)

4.2.1.4.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또 다른 방식은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철수는 우리나라보다 역사, 정치와 경제적인 위상을 가진 모(母) 국가를 자신의 민족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습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국이 그 당시에 뭐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이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죠. 조선시대 나라 상태가 썩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옛날 선생님은 무식하게 일본이 나쁘다고 가르치시는데… 아 직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일본 가서 전철을 타봤는데. 질서,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철수, 고1, 남)

4.2.2. 부모를 문제해결자로 여기지 않음

4.2.2.1. 무능력한 부모에게 실망함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부모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할 때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증폭되었다. 현철이는 자신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한국어가 미숙하여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엄마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일에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의 무능과 한계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부모를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친구들이 날마다 때리고 돈 빼앗고… 결국 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아빠는 일 나가시고. 엄마는 학교에 와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함부로 말하고… 결국 저만 바보가 되고… 이제 엄마 학교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현철, 중2, 남)

4.2.2.2.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엄마와 갈등을 겪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자녀들은 부모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

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있는 자녀에게 간섭 하려고 들고, 언어적으로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곤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상호간 분노와 실망감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철이는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인터넷 게임에만 매달리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엄마가 크게 야단을 치지만 현철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때 엄마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모국어로 욕설을 퍼붓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자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근데 컴퓨터 하다가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짜증 나가지고 막 욕하고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개겨요. 그럼 엄마가 소리 지를 때도 있죠. 막 때리면 좋아리 때리는데 안 아파요. 말할 때 대화할 때 막 좀만 해도 뭐라 하면서 태국말로 막 계속 욕하고… 티비에서 막 나온 말을 설명해주면요 그게 뭐냐고 계속 물어봐서 짜증나요. (언제 제일 답답하니?) 말이 안 통할 때. 제가 뭐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뭐뭐뭐?” 하면서 계속 그럴 때…”(현철, 중2, 남)

4.2.3. 부·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

4.2.3.1.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자신이 소속된 가족의 사회문화적인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친구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학력, 직업 등의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상하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반감이 생겨났다. 민철이는 자신이 성장하거

나 학습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특정 업종의 농사일을 짓다가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해 업종으로 바꾸셨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업종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엄마를 구박하거나 무시하였다고 한다. 민철이는 이런 아버지에게 심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온 가족이 농사일에 매달려도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아버지의 잦은 업종변경 때문이라고 귀인하면서 아버지 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뭘 좀 챙겨줬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좀… 그래요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도 많고, 농사일도 많고… 엄마를 보면 안쓰러워요. 엄마가 우리 앞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 우리집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집안형편은 늘 어려워요. 근데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감자였다가 또 토마토로 바뀌었어요. …… 엄마가 일을 잘 못하면 아빠가 뭐라 해요. 이런 것도 잘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아빠한테 반발도 했었니?) 마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민철, 고1, 남)

4.2.3.2. 모(母) 출신 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연 자신이 국내에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출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경우, 혹은 영어권의 나라인 경우 청소년기 자녀들은 진로와 취업의 대안으로서 모(母) 국가를 떠올렸다. 특히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사용한 경우,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수록 이러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필리핀 어머니를 둔 영숙, 일본인 엄마를 둔 철수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모 출신 국가로 유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혹은 뭔가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영어 잘하시겠네… 저희 엄마도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영어 돈 안 내고 엄마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영어 잘하는데 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엄마가요 제가 고등학생 되면 필리핀에 가서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 저도 가고 싶어요. …”(영숙, 중1, 여)

4.2.3.3.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결혼생활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종교 안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두 분의 관계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인식하면서 혹시 자신에게도 국제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도 부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략) 이성교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맘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그냥… 표만 안 내면 된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성교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종교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민철, 고1, 남)

4.2.4. 불안감이 핵심 정서로 등장함

4.2.4.1.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농촌의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무언중에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하루종일 일에만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 쓰럽고, 그럴수록 자신이 빨리 독립해서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처지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 농사일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집안도 어려운 것 같아요. 동생도 공부하지 않고... 빨리 대학가고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엄마도 일을 좀 덜해도 되는 거고... 근데 공부는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앞은 깜깜하고 막막해요.”(민철, 고1, 남)

“공부 잘하는 것밖에는, 커서 자기처럼 노가다 같은 거 하지 말고 좋은 회사나 들어가라고 더 좋게 살라고... 아빠는 자신이 학교를 안 다녀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요.”(현철, 중2, 남)

4.2.4.2. 지속적인 학업 부진으로 불안에 시달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정서는 ‘불안감’이었다. 특히 공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갈수록 안 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빨리 취업하여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학교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자 자신이 설계하는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아 이번엔 못 봤으니까 다음엔 잘 보면 되지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게... 이 성적조차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 공부가 안 돼요. 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자시간에도 엉뚱한 생각만 들어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민철, 고1, 남)

4.2.4.3.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불안감을 다루려고 하였다. 민석이는 화가, 여행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접어두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 민석이는 그림에 소질이 많지만 화가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 힘들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 화가로서의 꿈을 접었다. 또한 민석이는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여행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후회하고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평범한 회사원으로 꿈을 바꾸었다.

“초등학교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힘들 것 같고 계속 그림만 그린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행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직업을 갖게 된다면 후회할까봐 처음엔 그냥 세계를 떠돌아다닐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음... 결국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음 평범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거...”(민석, 중1, 남)

5. 결론 및 제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변인을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학업,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에서 ‘문제’를 지닌 존재로 표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이라는 지역 변수와 ‘청소년기’라는 발달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경험 특성을 기술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남 H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자녀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적응 경험에 대한 단순 일반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적응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고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경험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경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5.1.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험 이해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면단위와 읍단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읍단위와 면단위에 따라 학교 환경,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외국인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경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면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긍정적인 학업적·사회적 정체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면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학생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 또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오히려 주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면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가 방과 후교실 등을 운영하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맞추어 주는 등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업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 인원수가 적다 보니 교사가 학생 개

인에 대한 심층 이해, 개별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이러한 교사의 배려와 관심이 자녀들의 긍정적인 학교 경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관되게 언어발달의 지체를 보이거나(김선정 & 강진숙, 2009; 황상심 & 정옥란, 2008), 일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떨어지거나(안혜령 & 이순형, 2009), 지식습득능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구효진 & 최진선, 2007)고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 면단위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읍단위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은 소규모학교에 다닌 자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학년당 두서너 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도 소수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피부색 등 외모적인 이질성을 가진 경우, 혹은 중도 입국으로 한국어가 서투른 경우, 이들은 일반 학생과 교사들에게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놀림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소수집단으로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 이현숙, 2006; 안효자, 2008; 오성배, 2007; 정현영,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 장면에서 자신의 존재가 주류적 위치에 있느냐 혹은 소수자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교사를 비롯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순미(2007)의 농촌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정도, 어머니의 출신국과 같은 다문화적 특성보다

는 또래 수용과 같은 사회심리 또는 또래 관계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진학을 위하여 면단위의 소규모학교에서 읍단위의 대규모학교로 이동한 경우, 자녀들이 정체성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주류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만한 자극이나 상황이 없다가, 대규모 학교로 진학하면서 뒤늦게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심한 불안과 혼란, 급격한 성적 하락 등 학업적·대인관계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가 보여주는 특징은, 소규모학교에서 대규모학교로 진학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규모 학교에 노출된 자녀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유사하게 경험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가졌던 학업적·대인관계적 긍정적 정체감을 대규모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 확대, 역사적·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교사의 중립적이고 다문화적인 태도, 다양한 활동 제공을 통한 학업적 유능감 증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급우 혹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부여 등의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면단위의 국제결혼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 공간이 좁아 부부와 자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어머니(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사일을 거들거나 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읍단위의 국제결혼가정은 면단위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며, 여느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면단위와 읍단위 국제결혼가정 간 자녀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었다. 면단위의 자녀들은 하루종일 일에 파묻혀 지내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많았던 반면에, 읍지역의 자녀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군청 행사에서 통역까지 담당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였다.

5.2.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험 특성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인지적·정서적 능력과 현실 검증력이 생겨나고,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아동기 대인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형태의 주류 문화 적응 방식을 보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출신의 친구와 어울린다거나, 친구 관계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홀로 외톨이로 지내는 등의 회피 방식을 보이거나, 혹은 주류 집단에 합류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라는 것을 숨김으로써 친구 간 갈등과 편견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등 동화 방식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자녀들은 모(母) 국가의 민족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습 등을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기 진입하면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인식하면서 아버지의 낮은 학력 수준과 경제적인 무능함에 반감을 가지는 반면에, 낯선 이국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에 대해서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속에 내재된 부부간의

불균형을 인식하면서 부와 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하여 학력이 높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적응력이 뛰어나며, 가정과 자식을 위해 농사일과 같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생활력을 가진 분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간의 차이를 인식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증폭되는 반면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고, 어머니를 위해 가사일을 돕거나, 동생을 돌보고,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만이인 경우, 학교 성적과 동생 돌보기를 통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거나 혹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빨리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모에 대한 애착은 모와 그 출신 국가에 대한 기대까지 확장되었다. 어떤 자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유명한 학원의 강사로도 지냈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였다. 또 다른 한 자녀는 어머니의 출신국인 일본에 대한 우월주의적 사고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미래의 진학과 취업의 대안으로 여기고, 그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또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문제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부모를 문제해결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확대된 사회적 무대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언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의 부모가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집단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보며, 자녀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비판적인 사고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머니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점은 자녀들과 어머니의 대화 단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자녀들은 계속되는 일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결국 자녀가 부모의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 안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정의 자녀는, 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종교 활동에 대한 거부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다루어본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며, 불안감이 핵심 정서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자란다(김이선 & 김민정, 2006; 김진희 & 박옥임, 2008).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학업성적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졌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지나친 학업 경쟁에 노출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소수자적 위치에 있고, 친구와 교사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만이로서 엄마를 보호하고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때문에 더 큰

불안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감은 진로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잦은 편견과 차별을 받은 경우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평균 이상의 장래 직업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Taylor와 Graham (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5.3. 제언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맥락과 생애발달 단계에 따라 자녀들의 적응 양상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획일적으로 특정 대상화 하는 방식보다는 이들이 처해 있는 지역적, 발달단계적 맥락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발달단계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들이 다양한 적응 양상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심층면접의 연구대상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고, 여자청소년이 1명에 불과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차이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에 따른 경험 양상들을 파악하였을 뿐, 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 특성에 따른 자녀의 경험 양상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구효진, &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연구: 사회적 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선정, & 강진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40, 31-55.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 갈등 결정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2009).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과제*. *젠더리뷰*, 가을호, 11~18.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 김민정.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정해숙, & 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연구*. 서울: 농림부.
- 김진희, &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 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대전: 충남발전연구원.
- 박윤경, &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간 차이와 집단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서덕희. (2009). *과정으로서의 '문화' 개념에 입각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애를 중심으로*. 2009년도 한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3-112.
- 서현, &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12(4), 25-47.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 임경택.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이해경, &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송미경, 지승희, 이은경, &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경림,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안혜령, &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 안효자. (2008). 일개시 농어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4), 383-391.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22, 186-213.
- 이소희, & 최운선. (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적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63-185.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재분, 강순원, & 김혜원.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덕희, &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청소년학연구*, 17(3), 123-147.
- 정현영.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 서덕희, & 권순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 통계 결과*. 대전: 통계청.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황상십, &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관련 상관 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17(1), 81-102.
- Adams, R., & Lauren, B. (2001). The organization and dynamics of adolescent conflict with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1),

97-110.

- Garrod, A., Ward, J. V., Robinson, T. L., & Kilkenny, R. (1999). *Soul looking back: life stories of growing up back*. New York: Routledge.
- Gibson, J. L., Westwood, J., Ishiyman, F. I., & Borgen, W. A. (1991). Youth and culture: a seventeen nation study of perceived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14(3), 203-216.
- Harter, S. (2003).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t.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Guilford.
- Herman, M. (2004). Forced to choose: Some determinants of racial identification in multiracial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5(3), 730-748.
- Keats, D. (1997). *Culture and the child: A guide for professionals in child care an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Lincoln, Y., & Guba. E. (2004).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Nieto, S. (2004).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tudents' perspectives. In Ladson-Billings, G. & Gillborn, D. (Eds.), *The RoutledgeFalmer Reader in Multicultural Education* (pp. 179-200). London: RoutledgeFalmer.
- Taylor, A. Z., & Graham, S. (2007).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values and perceptions of barriers among low-SES African American and Latino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52-64.
- Williams, T. K., Nakashima, C. L., Kich, G. K. & Daniel, G. R. (1996). Being different together in the university classrooms: Multiracial identity as transgressive education. In Boot M. P. (Eds.), *The Multiracial experience: Racial borders as the new frontier*. Thousand Oaks, Calif: Sage.